

부모의 감독정도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arental Monitoring and Adolescents' Self-Control on Adolescents' Problem Behavior*

동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고정자

Dept. of Home Management, Dong-a Univ.
Prof. : Ko, Jung Ja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show general trends in the degree of parental monitoring, self-control and problem behavior perceived by adolescents and to examine possible changes in such trends in accordance with gender of adolescents and mother's employment, and then to determine the effects of these variables on adolescents' problem behavior. The subjects were 1288 adolescents of middle school in Busan (male 661, female 627).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1) General trends in the degree of internalizing problems and total behavior problems showed that girls had more problem behaviors than boys. (2) Boys and girls with unemployed mother perceived more parental monitoring than ones with employed mothers. Boys with unemployed mother had more self-control than ones with employed mothers. Boys with employed mother showed more problem behaviors than ones with unemployed mother. (3) Mother's employment, the degree of parental monitoring and self-control had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internalizing problems, externalizing problems and total behavior problems. (4) The degree of self-control was the most powerful predictor of problem behaviors of middle school students.

Corresponding Author: Jung-Ja, Ko,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Dong-A University, Hadan-Dong 840, Saha-Gu, Busan 604-714, Korea Tel: 82-51-200-7309 Fax: 82-51-200-7312 E-mail: jjko@daunet.donga.ac.kr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Dong-A University Research Fund in 2003.

주제어(Key Words): 부모의 감독(parental monitoring), 자기통제력(self-control), 내재화 문제(internalizing problems), 외현화 문제(externalizing problems), 총문제행동(total behavior problems)

1. 서론

현대의 산업사회와 도시화 과정에서 수반되어 나타나는 사회변동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켜 왔다. 이러한 사회문제 중에서도 청소년문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미래사회의 변동성과도 맞물려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사안이다.

최근 청소년범죄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공통적인 추세로서 그 양적인 면에 있어서 증가 추세이며, 질적으로는 포악화, 능동화, 조직화 경향을 띠고 있다.

또한 범행의 집단화, 저연령화 경향과 재범률의 증가, 종류이상 가정출신의 청소년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은 것은 단순히 청소년이 그들 자신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의 주거환경과 여건, 즉 가정과 사회환경 그리고 각종의 사회병리현상에 의하여 가치관이 불건전하게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청소년범죄를 야기시키는 가정의 문제로는 가족제도의 붕괴로 인한 성인중심의 분위기 형성과 자녀교육에 대한 무관심, 바람직하지 못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의 부재현상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건전한 가정교육에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가정내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가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유발시키고 가정에서 소외되고 부모와의 애착이 없는 청소년들이 가정에 적응하기가 힘들어 탈선과 일탈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특히, 산업화에 따라 부부가 모두 취업함으로써 인하여 부모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가정보다는 직장에서 더 많이 생활하게 되었다. 자연히 가족 간의 의사소통 기회가 감소하여 심리적 유대감은 약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치관의 갈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가정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모성의 역할을 하지 못하여 자녀들에게는 모성실조

(maternal deprivation)의 현상마저 나타나는 수도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훈육과 감독 상태의 결함이 발생한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은 주변의 나쁜 상황과 쉽게 결합되며, 비행의 위험에 빠질 확률이 높아진다(유화수, 1999). 비행률에 있어서 남·녀 모두 방임형 가정 출신이 비슷한 비율로 높게 나타난 것은 방임형 가정이 청소년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리하여 자녀들은 동년배집단 지향적이 되기 쉬우며, 동년배집단의 미숙한 비공식적 규범이 자녀들의 행동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우려가 많다. 즉, 청소년기에는 또래와의 관계가 보다 중요시되면서 안전과 지지의 기반을 가족에서 친구관계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어 집에 있는 시간보다 집밖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이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환경요인으로 부모의 감독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국외 연구에 비해 미비한 실정이므로 부모의 감독과 청소년의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부모의 감독과 청소년의 문제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의 감독과 청소년의 문제행동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감독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자녀의 성과 어머니의 취업유무를 들 수 있다. 먼저, 자녀의 성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어머니는 남아와 여아를 서로 다르게 양육한다는 연구결과(Bakeman & Brown, 1977)가 있는가 하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는 연구(임희수, 1994)도 있다. 감독에 있어서도 성차가 있다는 연구(Kerr & Stattin, 2000)와 성차가 없다는 연구(Stattin & Kerr, 2000)가 서

로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부모의 감독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으로 는 어머니의 취업유무를 들 수 있다. 사회의 발전과 남녀 역할에 따른 구분이 점차 사라져감에 따라서 여성의 취업기회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에 따라 청소년은 방임·방치되어진 채 무관심의 대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결과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애정의 충족을 거부당하며, 욕구불만이나 좌절이 쌓이게 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행동으로 반응하며 이는 비행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여성의 47.5%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며(통계청, 2003), 증가하는 여성의 취업은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피로해지므로 모-자녀간의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그러나 맞벌이인 경우에 어머니의 감독에 있어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Crouter, MacDermid, McHale, & PerryJenkins, 1990)와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Patterson, 1982)가 보고되고 있어,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감독에서의 차이는 일관된 결과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청소년의 성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는 신체적 공격성을 더 많이 나타냈고(Block, 1983), 여아는 불안이나(서선주, 1999) 신체증상(김혜영, 2000)을 많이 보인다는 연구결과와 같이 대체로 남자는 외현화 행동을, 여아는 내면화 행동을 보여(Stattin & Kerr, 2000), 청소년의 문제행동에는 성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취업주부의 자녀들이 전업주부의 자녀들보다 비행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김택수, 1996). 즉, 선행연구들에서는 청소년의 성과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는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대부분의 개인의 행동은 부모나 타인의 명령 또는 이들에게서 오는 결과에 의해서 통제되지만, 개인 자신의 내적 명령, 지시 또는 자신이 만든 상과 벌에 의해 통제되기도 한다. 따라서 개인의 행동은

완전히 외적 요인에 의해 통제되다가 점차 이러한 통제가 내면화 된다는 것이다(유효순·홍순정, 1995). 이를 자기통제력이라고 하는데 실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을 때, 방해요인의 영향을 제어하고, 표적행동을 실행하도록 자신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통제의 실패는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특히 충동 조절의 장애 또는 중독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쉽다.

Gottfredson과 Hirschi(1990)에 따르면 가정내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행위에 대한 부모의 감독, 자녀의 일탈행위발생에 대한 부모의 인지, 자녀의 비행행위에 대한 부모의 처벌을 통해 자녀의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양육방식은 자기통제력을 높일 수 있는 원인이 된다. Laub과 Sampson(1991)은 가정내에서 이러한 양육방식과 함께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 결여와 강압적 처벌, 이로 인한 부모와 자녀간의 정서적 유대의 약화가 복합되어 자녀에게 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자녀는 부모의 감독과 같은 양육과정에서 형성된 자기통제력에 따라 얼마나 억제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가에 따라 문제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볼 때, 가정에서의 부모 감독정도와 자기통제력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하여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국외의 연구에 비해 미비한 실정이므로, 부모의 감독, 자기통제력, 청소년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모의 취업유무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감독정도,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문제행동이 어떠한 경향을 보이며, 이들 변인들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감독정도,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문제행동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 있는가?
- 2)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감독정도,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문제행동은 모취업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3) 성별, 모취업여부, 부모의 감독정도, 자기통제력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감독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줄어들게 되고, 부모의 감독이나 보호가 없이 친구들이나 또래들과 어울리는 시간은 많아지게 된다(Fuligni & Eccles, 1993; Higgins & Eccles-Parsons, 1983; Simmons & Blyth, 1987). 따라서 방과후에 청소년들이 어디에 가고 무엇을 하며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는 부모나 연구자, 정책 입안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청소년 초기에 비행 행동이 대부분 방과후에 이루어진다(Fox & Newman, 1998)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시기에 성인의 감독이나 보호 없이 행동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커다란 위험 요소가 되므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이 절실히 요구된다.

‘부모의 감독(parental monitoring)’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긍정적 측면에서 부모의 감독은 “청소년들의 생활에 대한 직접적 통제로서,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김택수, 1996)으로써, 자녀를 단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수단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감독은 “자녀의 위치(whereabout), 활동(activities), 적응(adaptation)을 추적(tracking)하고 관심(attention)을 기울이는 일련의 양육 행동”(Dishion & McMahon, 1998)이나 “자녀들

이 어디에 있고(wherabout), 어떤 친구와 있고(companions), 무엇을 하고(activities) 있는지에 대한 부모의 지식”(Fletcher, Darling, & Steinberg, 1995) 내지는 “부모가자녀의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대화를 함으로써 자녀의 학교생활, 친구, 가정에서의 생활 등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것”(김유진, 1995)을 의미한다. 이 같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부모의 감독을 많이 받는 자녀는 부모가 자신에게 애정을 많이 갖고 있다고 지각한다(Harter, 1988).

한편,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부모의 감독은 자녀의 생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자녀의 생활을 추적(tracking)하고 감시(surveillance)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통제의 수단으로서 감독(watch over)하거나 점검(check)을 지속하는 것”(Read et al., 1995)으로 정의된다. 부정적 측면의 부모의 감독은 “부모가 자녀의 생활을 지시하고 통제하는 행동”으로 정의되는 ‘부모의 지휘(parental supervision)’와 유사하게 사용된다.

부모 감독에 관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남현미와 옥선화(2001)는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도로 부모의 감독을 보았고, 김선애(1995)는 부모의 감독을 부모-자녀의 일반적인 관계의 질을 반영하는 것으로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전제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며, 부모의 간접적 통제유형과 관련하여 부모의 감독을 언급하였다. 김희진(1998)은 어머니의 지도·감독을 유아가 또래간의 상호작용을 할 때 어머니가 유아를 관찰하거나 놀이행동을 돕는 행동으로 정의하였고, 천희영 등(2000, 2001)은 Stattin과 Kerr(2000)의 이론을 근거로 자녀의 왕래 장소가 어디며 무슨 활동을 누구와 하는지 등의 자녀 일상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의 정도로 부모의 감독을 보았다.

부모의 역할 중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감독자로서의 역할로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녀의 활동, 친구관계 등에 부모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말한다(Parke & Slaby, 1984). 감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활동이나 문제들을 잘 파악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학교생활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친구사이의 갈등, 혹은 집 밖에서의 행동 등에 대해 알기가 어렵다.

자녀가 성장할수록 부모의 직접적인 훈육을 통한 통제나 보호보다는 부모의 영향권 밖에서의 자녀의 활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절하며 자녀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갖는 감독자로서의 부모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측면의 정의를 토대로 부모의 감독을 “자녀가 어디에 있고, 누구와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모의 지식”으로서 정의한다.

2.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란, 개인의 사회적 위치변화와 형벌체제에 대한 지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남아있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에 있어서의 개인적인 차이이다(Gottfredson 등, 1990). 따라서 자기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자신과 타인에게 줄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해서 행동을 선택하기에 사실상 인생을 통해 범죄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적은 반면,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충동성, 단순성, 신체활동성 등의 특성으로 범죄를 할 가능성이 높고 지나친 흡연이나 음주, 약물사용, 도박 등과 같은 유사행위를 할 가능성 또한 높다.

Gottfredson 등(1990)은 불완전하거나 비효율적인 사회화 특히 부적절한 자녀양육이 낮은 자기통제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높은 자기통제력을 낳는 적절한 자녀양육은 자녀들과 애착관계를 형성하여 자녀들을 가까이서 감독하고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인식하여 처벌할 때 가능하다. 이런 자녀들은 대개 비행하지 않거나 성인이 되어서 범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감독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인식하여 처벌하는데 실패할 때 자녀들의 자기통제력 정도는 점차 낮아지게 되어 평생동안 이런 사람들은 기회가 온다면 다양한 범죄와 유사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자기통제력은 개인에게 있어 한평생 지속적인 안정성(stability)을 지니게 된다.

자기통제력은 또한 다능성(versatility)을 특징으로

하는데, 자기통제력이 낮을 경우 행위에 있어 범죄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사행위까지 한다는 것이다. 이는 범죄행위에 있어 특정유형의 범죄만을 전문적으로 저지르기보다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 유사행위를 저지르는 특성을 의미한다.

Gottfredson 등(1990)은 낮은 자기통제력의 기본적인 6가지 요소를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충동성으로 범죄나 유사행위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즉각적인 보답을 제공하기에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높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범죄, 유사행위들이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에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게 된다. 둘째 단순성으로 범죄나 유사행위는 욕망을 추구하는데 있어 쉽고 단순하기에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이들은 복잡한 일은 회피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근면, 지속성 등이 부족하게 된다. 셋째, 위험추구성으로 범죄와 유사행위들은 흥미롭고 위험스러우며 스틸감이 있기에 위험을 추구하는 특성을 가진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이들은 만족하게 된다. 넷째, 신체적인 활동성으로 범죄 등은 기술이나 계획을 필요로 하지 않기에 언어적 특성, 지식추구, 정신적인 특성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쉽게 가담하게 된다. 따라서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이들은 높은 사람들에 비해 보다 신체적이고 활동적이며 모험을 좋아한다. 다섯째, 자기중심성으로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이들은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에게 무관심하다. 여섯째, 분노로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이들은 좌절을 견디지 못하고 갈등에 대해 언어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낮은 자기통제력을 가진 이들은 이와 같은 특성들을 가짐으로써, 남들보다 더욱 범죄와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3.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요인

청소년비행과 다양한 요인들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가정의 부적절한 요인에 의해 비행이 발생한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부족, 애착결여, 불규칙적이고

엄격한 규율, 결혼생활의 불화, 자녀행동에 대한 감독과 통제의 부족 등이다(Geismar & Wood, 1986; Loeber & Stouthamer Loeber, 1986; Rosen, 1985). 이런 일련의 연구들은 특정 요인이 아닌 다양한 가정적 요인들이 비행의 정도와 유형을 변화시키는데 상호작용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부모감독과 관련하여, Patterson과 Stouthamer-Loeber(1984)를 비롯한 연구자들은 종단적·횡단적 연구를 통해 잘 감독되지 않은 청소년이 반사회적·범죄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또 흡연과 약물복용, 학업성취의 저하, 위험한 성적행동 역시 부모의 감독 소홀과 관련되어 있었다(Crouter, Helms-Erikson, Updegraff, & McHale, 1999), 남선미와 옥선화(2001) 역시 부모의 적절한 감독이 주위환경의 영향을 완충시키며 위험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Patterson, Reid와 Dishion(1992)은 청소년기 초·중기에 걸쳐 부모감독이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된다고 했다. 왜냐하면 자녀가 보다 넓고 다양한 관계를 맺는 청소년기에 이르면 부모의 영향권 밖에서의 자녀의 활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절하는 감독자로서의 부모역할이 자녀의 문제행동을 예상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에 따라 부모의 간접적 통제가 청소년 초기 내지 중기부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확인한 김선애(1995)는 청소년 초기부터 간접적 통제의 영향력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직접적 통제의 영향력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따라서 청소년 초기는 직접적 통제가 두드러진 영향력을 발휘하는 학령기와 간접적 통제가 두드러진 영향을 발휘하는 청소년 중기의 양자적 특성을 띠는 시기로 특히 주목된다 하겠다.

부모의 감독과 비행간의 상관성은 많은 연구에서 뒷받침되었다. 비행소년의 부모들은 자녀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며,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상대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Hirschi, 1969; Wilson, 1980), 자녀가 친구를 선택하는데 적절한 조절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Fischer(1983)는 부모의 감독과 비행 발생률간의 경험적 분석을 통하여, 부모의 감독 역할

의 강화가 자녀의 비행 발생률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Orponas, Murray와 Kelder(1999)는 부모감독,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 부모의 지지부족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며, 싸움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공격성의 예측요인이라고 제시했다. Brendgen, Vitaro, Tremblay와 Lavoie(2001)은 낮은 수준의 부모감독이 폭력의 예측요인이라고 하였으며, 부모의 따뜻함과 보살핌을 받으면 대인관계에 대해 긍정적이며, 폭력적인 행동이 감소된다고 하였다.

Farrington과 Loeber(2000)는 청소년 폭력의 위험요인으로 부모 감독의 소홀함을 보고하였으며, Gorman-Smith, Tolan과 Zelli(1996)는 빈약한 부모감독과 낮은 가족응집력을 폭력가해의 예측요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Thornberry, Huizinga와 Loeber(1995)의 연구에서도 빈약한 부모 감독과 낮은 부모와의 친밀도가 청소년 폭력의 예측요인이라고 제시했다. 이성식(1996)은 부모의 감독 여부가 청소년의 범죄와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음을 주장했으며, 박경길(1998)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무관심, 과잉기대, 어머니의 억압적 양육태도, 부모간의 불화가 학교 폭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부모의 감독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결과(Fletcher, Darling, & Steinberg, 1995)도 있다.

Gottfredson 등(1990)은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범죄, 비행을 예측할 수 있고, 어린 시절 형성된 자기통제력은 평생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며, 범죄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죄유사행위까지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Brownfield 등(1993)은 자기통제력과 청소년비행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1960년대에 Hirschi 등이 한 Richmond Youth Study에서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기통제력 지표들은 공식적인 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Entner Wright 등(1999)의 연구에서는 출생후 21세에 이르기까지 대상자들을(최초 조사대상자 1,037명, 21세때 대상자 992명) 지속적으로 조사한 결과, 아동기 때의 낮은 자기통제력은 청소년기의 낮은 통제력,

비행, 사회적 결속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다시 이 3가지는 21세대의 범죄를 상당부분 예측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간접효과 중에서 청소년기의 낮은 자기통제력을 통한 경우와 비행친구를 통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기의 낮은 자기통제력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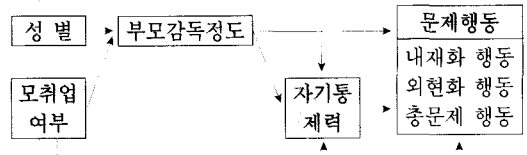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자기통제력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민수홍(1996)의 연구에 의하면 낮은 자기통제력이 재산범죄, 폭력범죄, 비행과 반비례 관계를 나타냈다. 자기통제력은 부모의 감독, 부부간의 난폭한 언행사용, 자녀에 대한 부모의 난폭한 언행사용, 어머니의 취업에 의해 유의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광도(2001)는 자기통제력은 지위비행, 질서위반, 파괴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 등 전체비행과 반비례관계를 나타냄을 보여주었다. 또한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과 감독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게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모형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조사절차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로, 남녀 중학생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조사를 위한 자료수집에 앞서 2003년 4월 14일, 15일에 부산시내 소재의 중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하여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성을 검토한 후 부적절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본조사용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본조사는 2003년 5월 12일부터 17일까지 부산 시내 중학교 1, 2, 3학년 남·여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1363매였으나, 그 중 기재 누락이 많은 부실한 질문지를 제외하고 총 1288매의 질문지를 최종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변 인	집 단	빈도(명)	백분율(%)	변 인	집 단	빈도(명)	백분율(%)	
성 별	남	661	51.3	월 평 균 소 득	100만원 미만	90	7.4	
	여	627	48.7		100-200만원 미만	433	35.8	
학 년	1학년	444	34.5		200-300만원 미만	390	32.2	
	2학년	426	33.1		300-400만원 미만	156	12.9	
	3학년	418	32.5		400만원 이상	141	11.7	
	아버지 교육수준	중졸 이하	92		7.1	어머니 교육수준	중졸 이하	140
	고졸 이하	505	39.2			고졸 이하	659	52.4
	대학졸 이상	663	51.5			대학졸 이상	458	36.4
어머니 취업유무	취업모	524	43.7					
	비취업모	675	56.3					

3. 측정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사도구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과, 부모의 감독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 청소년 문제행동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1) 부모의 감독정도

부모의 감독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는 박성수(1994)가 제안한 부모의 가정교육을 재는 항목 가운데 부모의 자녀에 대한 생활과외 및 감독을 측정하는 문항들과, 김준호·김은경(1995)의 부모의 감독 및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을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녀가 외출하였을 때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에 대해서 부모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위한 4개의 문항과, 자녀의 친구관계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도를 알아보는 3개의 문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의 생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 .86$ 이었다.

2) 자기통제력 척도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척도는 Gottfredson과 Hirschi(1990)가 사용한 자기통제력 척도와 김현숙(1998)의 자기통제평정척도를 참고로 척도를 재구성하여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장기적인 안목을 추구하는 정도에 관한 10개의 문항과,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에 관한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것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이때,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정도에 관한 10개의 문항은 역산하여 총 20문항의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 .88$ 로 나타났다.

3) 문제행동척도

청소년의 문제행동 척도는 Youth Self-Report (Thomas M. Achenbach, 1991)를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의 공동연구로 번안된 검사지(1997)를 사용한 것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문항수는 총 117문항이며, 불안-우울, 사고문제, 주의집중 문제, 사회적 위축, 자학성, 신체적 증상, 비행, 공격성 등 청소년의 정서 및 행동문제를 측정하였다. 이들은 크게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총 문제행동으로 구분하여 평가된다.

각 문항에 기술되어 있는 문제행동은 청소년 자신에 의해 평정되는데 각 항목은 0점(전혀 아니다), 1점(가끔 그렇다), 2점(자주 그렇다)의 Likert식 3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영역의 표준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규정하였다.

문항분석 결과 전체에 대한 각 문항의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117문항을 모두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 .95$ 이며 하위영역별 신뢰도와 척도의 내용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4. 자료처리 및 분석

자료처리는 SPSS/WI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작성을 위하여 문항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α 의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고, 성별, 모취업유무에 따라 부모감독정도, 자기통제력, 청소년 문제행동이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K-YSR)의 하위영역별 신뢰도인 척도의 내용

하위 영역별 척도	신뢰도 계수	문항수(원점수 범위)	척도의 내용
내재화 문제	.90	30(0-60점) *(108번 중복)	위축 + 신체증상 + 우울/불안 척도
외현화 문제	.88	30(0-60점)	비행 + 공격성 척도
총 문제행동	.95	94(0-188점)	하위 영역을 모두 합한 값 (내재화문제 영역 + 외현화문제 영역 + 사회적 미성숙 + 사고문제 + 주의집중문제 + 자해/정체감 척도)

* 108번 문항은 위축과 우울/불안에 모두 해당되므로 내재화 문제행동 점수 계산시 한번만 계산해야 함.

IV. 연구결과 해석

1. 성별에 따른 부모의 감독정도, 자기통제력 및 문제행동의 차이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감독정도,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문제행동이 성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t-test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따르면 부모의 감독정도는 남학생은 평균 3.48점, 여학생은 평균 3.53점으로 남·여학생에 대한 부모의 감독정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은 남학생은 평균 3.19점, 여학생은 평균 3.16점으로 남·여학생의 자기통제력은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청소년이 지각하는 문제행동의 경우, 내재화 행동($P<.001$ 수준, $t=-.071$), 총문제행동($p<.05$ 수준, $t=-2.031$)에서 성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학생이 남

학생보다 내재화 문제행동, 총문제행동이 더 많이 나타났다. 외현화 문제행동의 경우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 모취업 유무에 따른 부모의 감독정도, 자기통제력 및 문제행동

남·여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감독정도,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문제행동은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t-test한 결과는 <표 4>, <표 5>과 같다.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부모의 감독정도는 여학생($t=-5.967$), 남학생($t=-3.892$)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청소년이 어머니가 취업한 청소년보다 부모의 감독정도를 더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취업유무에 따른 자기통제력은 남학생의 경우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t=-2.092$) 어머니가 취업을 한 남학생보다 어머니가 취

<표 3> 성별에 따른 부모의 감독정도, 자기통제력, 문제행동
N=1287

변인	남학생		여학생		t값
	M	SD	M	SD	
부모의 감독정도	3.48	7.15	3.53	7.65	-1.149
자기통제력	3.19	7.63	3.16	7.50	1.401
내재화 행동	1.26	9.82	1.46	9.94	-3.071***
외현화 행동	1.34	9.13	1.35	8.84	-.089
총문제행동	1.29	27.65	1.37	27.36	-2.031*

* $p<.05$ *** $p<.001$

<표 4> 모취업 유무에 따른 부모의 감독정도, 자기통제력, 문제행동 (남학생)
N=592

변인	취업모		비취업모		t값
	M	SD	M	SD	
부모의 감독정도	3.38	7.60	3.63	7.52	-3.892***
자기통제력	3.12	7.62	3.19	7.34	-2.092*
내재화 행동	1.55	9.89	1.29	9.71	3.839***
외현화 행동	1.50	9.37	1.23	8.33	4.273***
총문제행동	1.49	27.56	1.25	26.66	4.137***

* $p<.05$ *** $p<.001$

〈표 5〉 모취업 유무에 따른 부모의 감독정도, 자기통제력, 문제행동 (여학생) N=607

변인	취업모		비취업모		t값
	M	SD	M	SD	
부모의 감독정도	3.30	7.38	3.64	6.50	-5.967***
자기통제력	3.17	7.84	3.20	7.27	-1.025
내재화 행동	1.31	10.11	1.22	9.60	1.355
외현화 행동	1.37	9.25	1.31	9.06	.938
총문제행동	1.32	28.51	1.23	27.05	1.381

업하지 않은 남학생이 자기통제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취업유무에 따른 청소년 문제행동은 남학생의 경우 내재화 문제(t=3.839), 외현화 문제(t=4.273), 총문제행동(t=4.137)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어머니가 취업을 한 남학생의 경우 문제행동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은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문제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성별, 모취업여부, 부모감독정도, 자기통제력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1) 회귀분석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에 따라 각 변인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종속변인과

그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을 대상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 참조). 이들 변수 중 명명척도로 되어 있는 성별, 모취업유무는 가변수(dummy)로 처리하여 적용하였다. 성별의 경우 남(0), 여(1)로, 모취업유무는 모취업(0), 모비취업(1)로 가변수 처리하였다.

각 변수들의 경로분석에 앞서 회귀식의 기본가정인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별, 모취업여부, 부모의 감독정도, 자기통제력, 청소년 문제행동 간에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6〉 참조) r=.7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배제되었으며, 오차항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Durbin-Watson test 한 결과 계수가 1.712~1.955 사이로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시켰다. 경로분석 결과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변수만을 인과모형에 도식화하였으며, 각 변인간의 경로계수는 β계수로 나타내었다.

먼저 성별과 모취업여부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부모의 감독정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감독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모취업여부(β=.198)였으며, 이 변인의 설명력은 3.8%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은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 부모의 감독정도가 높은 것으로 인지하였다.

다음 단계로 성별, 모취업여부에 부모의 감독정도를 첨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감독정도(β=.221)가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수의 설명력은 3.8%였다. 즉, 부

〈표 6〉 청소년 문제행동과 관련변인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1. 성별	1						
2. 모취업여부	.026	1					
3. 부모의 감독정도	.032	.198**	1				
4. 자기통제력	-.039	.063*	.226**	1			
5. 내재화문제	.085**	-.103**	-.171**	-.289**	1		
6. 외현화문제	.002	-.105**	-.207**	-.438**	.724**	1	
7. 총문제행동	.057*	-.109**	-.213**	-.409**	.925**	.906**	1

*p<.05 **p<.01

<표 7> 각 변인들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인	부모의 감독정도	자기통제력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문제행동
성별	.023a	-.045	.076**	-.003	.047
모취업여부	.198***	.020	-.069*	-.059*	-.065*
부모의 감독정도		.221***	-.102***	-.102***	-.116***
자기통제력			-.255***	-.413***	-.375***
상수	33,207	55,775	42,086	52,613	153,996
Adjusted R ²	.038	.050	.100	.206	.185
F값	24,776***	22,036***	34,383***	78,647***	68,745***
D-W 계수	1.712	1.955	1.885	1.835	1.841

*p<.05 **p<.01 ***p<.001
a : 표준화된 회귀계수(β값)

모의 감독정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성별, 모취업여부, 부모의 감독정도에 자기통제력을 첨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내재화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β=.076), 모취업여부(β=-.069), 부모의 감독정도(β=-.102), 자기통제력(β=-.255)이었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10.9%였다. 즉, 여학생이,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부모의 감독정도가 낮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내재화문제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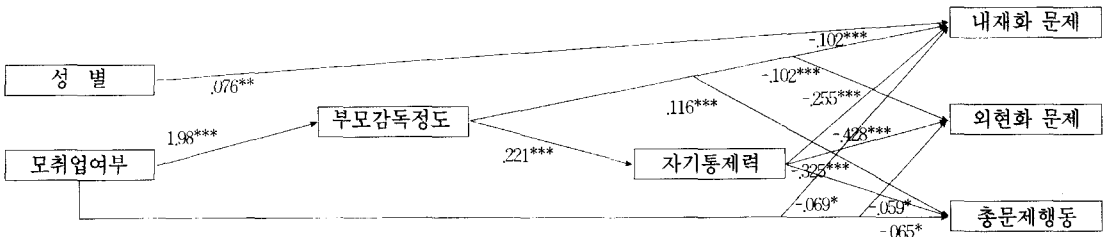
외현화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모취업여부, 부모의 감독정도에 자기통제력을 첨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취업여부(β=-.059), 부모의 감독정도(β=-.102), 자기통제력(β=-.413)이었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20.6%였다. 즉,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부모의 감독정도가 낮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외현화문제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총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모취업여부, 부모의 감독정도에 자기통제력을 첨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취업여부(β=-.065), 부모의 감독정도(β=-.116), 자기통제력(β=-.375)이 총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18.5%였다. 즉,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부모의 감독정도가 낮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총문제행동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2) 경로분석

회귀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에 따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 의하면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그림 2>에 의하면, 청소년의 내재화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β=.076), 모취



<그림 2>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변인의 경로분석 결과

업여부($\beta=-.069$), 부모의 감독정도($\beta=-.102$), 자기통제력($\beta=-.255$)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어머니가 취업모인 경우, 부모의 감독정도가 낮고, 자기통제력이 낮은 경우 청소년은 내재화 문제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모취업여부($\beta=-.020$)는 부모의 감독정도를 통하여, 부모의 감독정도($\beta=-.056$)는 자기통제력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쳤다. 즉, 취업모를 가진 청소년은 부모의 감독정도가 적은 것으로 인지하고, 이러한 청소년은 자기통제력이 낮아 내재화문제가 많아짐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내재화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총인과효과를 살펴보면, <표 8>에서와 같이 자기통제력($\beta=-.255$)이 가장 설명력이 높았으며, 다음은 부모의 감독정도($\beta=-.158$), 모취업여부($\beta=-.089$), 성별($\beta=.076$) 순이었다.

청소년의 외현화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모취업여부($\beta=-.059$), 부모의 감독정도($\beta=-.102$), 자기통제력($\beta=-.413$)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취업모인 경우, 부모의 감독정도가 낮고, 자기통제력이 낮은 경우 청소년은 외현화 문제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모취업여부($\beta=-.020$)는 부모의 감독정도를 통하여, 부모의 감독정도($\beta=-.091$)는 자기통제력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쳤다. 즉, 취업모를 가진 청소년은 부모의 감독정도가 적은 것으로 인지하고, 이러한 청소년은 자기통제력이 낮아 외현화문제가 많아짐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외현화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총인과효과를 살펴보면,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수는

자기통제력($\beta=-.413$)이 가장 설명력이 높았으며, 다음은 부모의 감독정도($\beta=-.193$), 모취업여부($\beta=-.079$) 순이었다.

청소년의 총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모취업여부($\beta=-.065$), 부모의 감독정도($\beta=-.116$), 자기통제력($\beta=-.375$)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취업모인 경우, 부모의 감독정도가 낮고, 자기통제력이 낮은 경우 청소년은 총문제행동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모취업여부($\beta=-.023$)는 부모의 감독정도를 통하여, 부모의 감독정도($\beta=-.083$)는 자기통제력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쳤다. 즉, 취업모를 가진 청소년은 부모의 감독정도가 적은 것으로 인지하고, 이러한 청소년은 자기통제력이 낮아 총문제행동이 많아짐을 알 수 있다.

총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총인과효과는, 자기통제력($\beta=-.375$)이 가장 설명력이 높았으며, 다음은 부모의 감독정도($\beta=-.199$), 모취업여부($\beta=-.041$) 순이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남·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성별과 모의 취업유무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감독정도,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문제행동이 어떠한 경향을 보이며, 이들 변인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표 8>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인과효과

변인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총문제행동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성별	.076	.076	-	-	-	-	-	-	-
모취업여부	-.089	-.069	-.020	-.079	-.059	-.020	-.041	-.065	-.023
부모의 감독정도	-.158	-.102	-.056	-.193	-.102	-.091	-.199	-.116	-.083
자기통제력	-.255	-.255	-	-.413	-.413	-	-.375	-.375	-

첫째, 남·여학생에 대한 부모의 감독정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며, 자기통제력은 중간수준이었으며, 성별에 따른 유의차는 없었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경우, 내재화 문제, 충문제행동에서 성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여학생이 내재화 문제, 충문제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감독정도에 대해 남녀 학생 모두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지각하는 것은 이 시기의 부모들이 남녀 학생 공통적으로 자녀의 집밖에서의 생활이나 친구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청소년기의 특성인 부모로부터의 자율성과 독립성 추구에 대한 욕구(유안진, 1992)와 관련지어 볼 때 고등학생들이 부모의 감독수준을 과대평가 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어, 남현미(1999), 박진경·도현심(2001)의 연구와 결과를 같이 하지만,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감독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들(김순옥, 1995; 김준호·전은경, 1995; 오미경, 1998; Richardson et al., 1986)과는 차이를 보인다.

자기통제력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자기통제력에서 성차가 나타난 김두섭·민수홍(1996), 민수홍(1996), Gottfredson & Hirschi(1990, 1993)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남현미(1999)의 연구와 결과를 같이한다.

여학생이 내재화 문제, 충문제행동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여학생이 내재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김혜영(2000), 노숙영(1998), 박진경·도현심(2001), 서선주(1999), Sattin & Kerr(2000)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여학생이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등 내재화 문제를 많이 보이는 이유는 남·여학생이 경험한 양육행동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어릴 때부터 남아에게는 독립적, 적극적인 면을 기대하는 반면, 여아에게는 소극적이고 복종적인 면을 기대하며 사회화시킬 뿐만 아니라 남학생에게는 공격성을 허용하면서도, 여학생에게는 공격성에 대한 억압을 더 많이 하고 있다. 따라서 여학생은 비행행동 같은 외현화 행동보다 우울이나 위축 같은 내재화 행동이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여학생, 남학생 모두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청소년이 어머니가 취업한 청소년보다 부모의 감독정도를 더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어머니의 감독을 낮게 지각한 것으로 나타난 박진경(2001), Patterson(198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만 모취업여부와 어머니의 감독정도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Crouter, MacKernid, McHale, & PerryJenkins(1990)와는 결과를 달리한다.

사회의 발전과 남녀 역할에 따른 구분이 점차 사라져감에 따라 여성의 취업기회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에 따라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되고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피로해지므로 모-자녀간의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남학생의 경우 어머니가 취업을 한 학생보다 어머니가 취업을 하지 않은 학생이 자기통제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취업을 한 경우 문제행동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취업주부의 자녀들이 전업주부의 자녀들보다 비행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난 김택수(1996)의 연구와 결과를 지지한다.

셋째, 청소년들은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 부모의 감독정도를 높은 것으로 인식하였고, 부모의 감독정도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았다.

이는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어머니의 감독을 낮게 지각한 박진경(2001)의 연구와 결과를 같이한다. 취업모의 경우 자녀양육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적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자녀를 적절히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직장에서의 일에 빠져 있으면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거나 조언해주지 못하고,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알아채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취업을 한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감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부모의 감독정도만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친 결과는 모의 취업여부보다는 가족관계의 질적

특성에 따라 자녀의 자기통제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 민수홍(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나, 부모의 감독정도가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남현미(1999)의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취업여부가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치지만 부모의 감독정도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에 더욱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어머니가 취업을 한 경우라도 부모의 적절한 감독과 관심이 있다면 청소년은 자기통제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여학생이,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부모의 감독정도가 낮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내재화문제가 많이 나온 결과는 어머니의 감독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내면화행동이 덜 나타난다고 한 박진경(2001)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결과를 같이한다.

또한,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부모의 감독정도가 낮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외현화문제, 충문제행동이 많았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얼마나 잘 감독·통제를 하느냐가 청소년 비행과 연관이 있다고 한 석말숙(1988)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자기통제력이 높은 사람들은 장기적인 안목이 있으며 충동적인 경향이 낮기 때문에 문제행동에 덜 가담하게 된다는 선행연구(김두섭·민수홍, 1996; 민수홍, 1996; Gottfredson & Hirschi, 1990)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며, 부모의 긍정적인 참여나 감독은 품행장애와 비행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Forehand R, Miller KS, Dutra R, Chance MW(1997), Wasserman GA, Miller LS, Pinner E, Jaramillo B(1996)의 연구결과,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녀의 생활에 대해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는 경우에 청소년들은 탈선이나 비행 등을 저지를 가능성이 적다는 보고(김연수, 2000; 장영희, 2000)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즉,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은 충동적이고 근시안적인 성향으로 인해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주위의 동조압력을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행동에 더 쉽게 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가 되면서 또래와의 접촉을 보다 빈번하

게 경험하고 또한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므로, 부모가 자녀와 대화통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자녀는 문제행동에 빠질 위험이 있다. Reid와 Patterson(1989)은 부적절한 부모의 감독이 청소년의 파괴적인 행동의 원인으로 연결되어 비행친구와 접하게 되고, 결국엔 반사회적 행동으로 연결되어 비행친구와 접하게 되고, 결국엔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실제 연구결과를 보면, 부모의 감독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반사회적 행동, 비행 행동, 범죄 행동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Pettit, Bates, Dodge, Meece, 1999; Vitaro, Brendgen, Tremblay, 2000). 특히 Wilson(1980)의 연구결과는 부모의 감독과 비행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강조하였다. 일반적으로 비행은 주위 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해서 모든 청소년이 비행을 하는 것은 아니며, 부모의 적절한 감독이 주위 환경의 영향을 완충시키며 위험정도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넷째, 청소년의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충문제행동에 공통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모취업여부, 부모의 감독정도, 자기통제력이었으며, 그 외 모취업여부는 부모의 감독정도를 통하여, 부모의 감독정도는 자기통제력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쳤다. 청소년의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충문제행동 모두 자기통제력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경우 낮은 학업성취,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대인관계, 사회적응능력의 미숙과 문제해결능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김현숙, 1998), 충동적인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흡연, 음주, 약물남용 같은 다양한 행위들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밝힌 김두섭·민수홍(1996)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Gibbs 등(1998)이 289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자녀양육과 자기통제력 그리고 수업빠지기, 부정행위, 음주와 같은 일탈행위와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 부모의 자녀양육이 일탈행위에 직접 미치는 영향보다 자기통제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2배 이상 높게 나

타난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Gottfredson과 Hirschi(1990)는 가정내의 양육방식을 범죄에 대한 억제로 작용할 수 있는 자기통제력의 중요한 원인으로 언급하고, 비효율적인 양육방식이 자녀의 자기통제력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양육방식은 자녀의 행위에 대한 부모의 감독, 자녀의 일탈행위발생에 대한 부모의 인지, 자녀의 비행행위에 대한 부모의 처벌을 통해 자녀의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양육방식은 자기통제력을 높일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가정 내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일관성이 결여된 양육방식을 나타낼 때,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 결여와 강압적 처벌, 이로 인한 부모와 자녀간의 정서적 유대의 약화가 복합되어 자녀에게 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자녀는 부모의 감독과 같은 양육과정에서 형성된 자기통제력에 따라 얼마나 억제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가에 따라 문제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모취업여부, 부모의 감독정도, 자기통제력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지만, 부모의 감독정도나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문제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에도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적절한 관심을 가지면 문제행동이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연구결과 청소년은 모의 취업여부보다는 부모의 감독이나 관심이 적절하게 주어지는 양육과정에서 형성된 자기통제력에 따라 얼마나 억제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가에 따라 문제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즉, 부모가 적절히 감독을 하고 관심을 가져줄 때 부모가 자녀의 자기통제력을 개발시키기에 용이하므로 문제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을 검증함으로써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여러 변수간의 관계와 부모감독과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힘으로써 청소년 문제행동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아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청소년기 동안 개인 및 가족의 적응을 위해 바람직한 가족관계와 기능을 제시하여, 청소년 자녀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가족생활교육의 기초자료가 되도록 한다.

다섯째, 모의 취업유무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봄으로써,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참고문헌

권이중, 권병진(1999). 청소년유해환경이론. 서울: 교육과학사.

김경희(1999). 발달심리학: 생애발달. 서울: 학문사.

김보현(2002). 비행청소년 부모들의 부모교육 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일반 청소년 부모와의 욕구 비교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연수(2001).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심리적 가정환경요인과 개선방안. 동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희(2001).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자녀학대와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일반 청소년과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을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진화(2002). 청소년 문제행동론. 서울: 학지사.

남소현, 김영희(2000).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요인과 아동의 외면적·내면적 부적응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8(10), 199-213.

문화관광부(2000). 청소년백서2000. 문화관광부.

박소춘(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자아개념 및 학교폭력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지홍(2002). 비행청소년의 심리적 성장환경과 성

- 격특성에 관한 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박진경, 도현심(2001). 어머니의 감독(monitoring) 및 감독방법이 청소년의 외현화·내면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12), 129-140.
- 손승영(2001). 청소년의 일상과 가족. 서울: 생각의 나무.
- 신능현(2001). 비행청소년의 비행유형별 정서·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 소년원에 수용되어있는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주대학교 특수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정희(2001).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 유해환경 접촉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영재(2001). 뉴 밀레니엄 시대의 청소년복지론. 한국 청소년복지학회 학술총서. 서울: 양지.
- 윤주혜(2001). 가족기능이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1999).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 조영승(2001). 청소년환경론. 서울: 교육과학사.
- 한상철(1998). 청소년학 개론.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한상철, 조아미, 박성희(2001). 청소년심리학. 서울: 양서원.
- 한준상(1999). 청소년문제. 서울: 연세대출판부.
- 허혜경, 김혜수(2002). 청년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홍봉선(2001). 청소년복지론. 서울: 양서원.
- 홍성풍(2002). 학교유형에 따른 흡연청소년의 행동 특성 및 자아존중감의 차이.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수영(2000). 정상 및 비행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 가족기능 및 비행경향성의 차이. 전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chenbach, T. M. (1991b).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1991 profile*, Burlington: Univ.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Barber, B. K. (1992). Family, Personality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1), 69-79.
- Barnes, G. M. & Farrell, M. P. (1992). Parental Support and Control as Predictors of Adolescent Drinking, Delinquency, and Related Problem Behavior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4), 763-776.
- Eamon, M. K. (2001). Poverty, Parenting, Peer, and Neighborhood Influences on Young Adolescent Antisocial Behavior. *J. of social service research*, 28(1), 111-136.
- Gold, M. & Mann, D. (1972). Delinquency as defence. *American J. of Orthopsychiatry*, 42, 463-479.
- Hetherington, E. M., Stovwie, R. J., & Ridberg, E. H. (1971). Patterns of family interaction and child-rearing attitudes related to juvenile delinquenc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8, 97-136.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acob, J. (1974). Family interaction in disturbed and normal families: Amethodological and substan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82, 181-210.
- Lanese, R. R., Banks, F. R. & Deller, M. D. (1972). Smoking behavior in a teenage population: A Multivariate conceptual approach. *American J. of Public Health*, 62(6), 807-813.
- Matza, David and Gresham Sykes. (1961). Juvenile delinquency and subterranean Valu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6, 101-118.
- Shagle, S. C. & Barber, B. K. (1993). Effects of Family, Marital, and Parent-Child Conflict on Adolescent Self-Derogation and Suicidal Ideation.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1), 964-974.
- Snyder, J. J. & Patterson, G. (1987). Family Interaction and Delinquent Behavior, In H.C. Quay(ed.) *Handbook of Juvenile Delinquency*, N. Y.: Wiley, 216-243.
- Thomas, E. (1979). *Marital Communication and Decision Making*. Purdue Univ. Ph.D.Thesis.
- Watson, D., & Kendall, P. C. (1989). *Common and*

differentiating features of anxiety and depression;
Current findings and future direction;
Distinctive and overlapping features. Sandiago,
CA: Academic Press.

William, A. F. (1984). School achievement, social
status, and self-esteem.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7, 387-422.

(2004년 8월 23일 접수, 2004년 11월 11일 채택)